

중전기 생산공장을 다녀와서

- 他山之石 -



효성중공업(주)
대리 이상덕

금번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중전기 우수업체의 생산공장 방문(10. 25~10. 27)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강화와 회원사간의 유대강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상업무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최근 유행하는 벤치마킹이 어려운 개념의 경영기법이 아니라 「他山之石」이라는 우리 옛말의 현실적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시간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중전업계의 리더인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중견상장업체인 계양전기, 견실한 중소기업인 신아전기, 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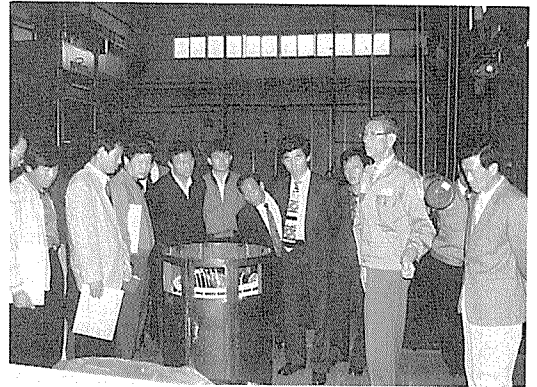
전기의 생산현장을 견학하면서 새삼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땀방울을 볼 수 있었다.

도심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벗어나 가을의 풍성함과 여유로 가득한 들녘을 바라보며 나 역시 평화로움에 잠기는 시간, 어쩌면 오랫동안 가져보는 여유속에 다음 방문업체의 모습을 그려본다. 첫날 방문업체인 안산의 신아전기는 중소기업로서 종업원에 대한 배려를 특히 잘하고 있어 120여명의 종업원 전체에 대한 해외 연수를 5년간 완료하는 등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종업원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천안공장 이진후 공장준공식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 방문단이



(신아전기공업(주) 생산라인을 관심있게 둘러보고 있는 방문단 일행)



(보국전기공업(주) 곽중보 사장이 발전기 제작 과정을 직접 안내)

공식적인 첫 방문이라는 계양전기 천안공장은 넓은 공장부지에 깨끗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동차용 DC MOTOR를 생산하여 주로 미국에 수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안내 담당자의 자신에 찬 모습에서 앞으로의 기술개발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설비마다 「My Machine」이라는 표식과 사진부착으로 애사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특히 불량공정에 대해 사진으로 게시하여 원인부터 고쳐가는 모습은 하나의 불량품도 허락치 않는 생산의 기본원칙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보국전기는 발전기, 수배전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소량, 다품종, 주문생산을 하는 중전기 업체인 전형임에도 공장내부는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중소기업에 알맞는 특화된 상품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국내의 경쟁사회에 있어서 생존전략

은 무엇보다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는 길 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업체간의 기술공유와 부단한 연구로 기술선진국의 수준을 뛰어넘는 방법밖에는 없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한국 대표기업의 이미지에 걸맞는 엄청난 공장규모, 생산설비, 자동화 LINE, 근무여건 등 최고의 기업 그대로였다. Avante 생산공정을 견학한 우리 일행에게 공통된 부러움이 있었다면 무엇보다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중전기 업체로서 계획품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화 LINE을 갖출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갖추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리라.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의 긴 대기행렬, 생산현장에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신나는 일터 조성, 생산공정 All Stop후 휴식 등도 인상적이었다.

중전업계의 리더이고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공장

사정으로 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거대한 조선 제작현장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공장방문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우리 일행의 마음속에는 각자가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벤치마킹-他山之石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각 업체의 좋은 점을 자사에 적용하므로써 보다 나은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단순한 업체방문이 아니라 동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업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애로를 들어보며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2박3일간의 공장방문은 중전업계의 내일을 보다 밝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